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0년 6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끎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다음 행사들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8월 2일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과 특별한 축일 기도 모임들에 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 점을 말해주러 왔다: 나는 앞으로 한동안 이 성지에서의 대중 (발현) 기도 모임의 날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장려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너희가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며 이곳에 오고 싶은 이들은 성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버스 여러 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승용차 한 대당 네 명까지는 성지에 올 수 있다. 공식적인 기도 모임은 없을 것이지만 각각의 소규모 단체는 그들끼리 스스로 기도하면 된다.”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너희는 과거에 우리가 큰 규모로 성지에 모였던 날들을 계속 기념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된 성심의 축일 (2020년 6월 21일), 하느님 아버지의 축일 (나의 축일, 2020년 8월 2일),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 (10월 7일) 등등이다.”

“나는 너희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느님 아버지 - 2020년 4월 24일)

■ **2020년 6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 아들의 거룩한 성심에 봉헌된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내 아들의 성심은 또 얼마나 거룩한가! 예수의 성심은 완전한 연민과 기쁨과 이해다. 예수의 거룩한 성심에 도움을 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예수 성심의 통치를 받기 바란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예수 성심의 힘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불신은 예수가 영혼에게 내리는 은총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므로, 예수 성심에 대한 영혼의 믿음이 각 영혼에 대한 이 신심의 영향을 결정한다.”

“예수 성심이나 하나된 성심의 상본이 전시되는 곳은 모두 천상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유익한 정보다. 너희는 이 상본들을 직장이

나 사랑, 그리고 모든 가정에 전시해야 한다. 그러면 천상의 축복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9):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소서.

■ 2020년 6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품고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끈다. 요즘 시대는 중대한 잘못들이 그에 대한 훨씬 더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시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친밀함을 목표로 삼기는 커녕 우선 사항으로도 여기고 있지 않다. 온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대부분 보답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그들의 요청에 대한 내 응답에 둔다. 그들은 내 신성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의 뜻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각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은 기적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각 영혼은 그 영혼에 대한 내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은총)을 받는다. 내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은총의 기적이다. 내 뜻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허락하는 뜻(Permitting Will)’이나 ‘명령하는 뜻(Ordaining Will)’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게 하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는 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요한 6):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0년 6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더 깊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현 순간 최선을 다하여라. 이렇게 하면 된다: 계명들을 배우고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여라. 또한 내 계명에 순종하기를 사랑하여라. 이런 순종의 모범이 됨으로써 너희는 다른 이들의 거룩함의 여정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로 하는 설교가 필요치 않은 복음 전도다. 이런 복음 전도는 절대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절대 너희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 이웃의 거룩함에도 은밀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6:11-16):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는 일이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2020년 6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진다.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를 그곳에 두는 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나라(미국)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 사악한 목표를 지니고 다닌다. 너희는 반드시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의 악에 대한 승리’라는 목표로 이에 대항해야 한다. 특히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래야 한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의 평화와 사랑의 계획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따라라. 악을 악으로 대응하려 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 한 번에 한 영혼씩 얻으면서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1:9-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 2020년 6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너희의 벗이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다.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바로 기도다. 또한 너희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노력을 격퇴하는 것도 바로 기도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도에 전념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했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나의 계명을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 행동한다. 이런 행동에는 흔히 쓰라린 결과가 뒤따른다. 죄에 대한 대응이 더 많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인간의 선택들을 지켜보면서 내 성심은 대단히 슬프다.”

“나는 온 인류를 내 품 안에 감싸기를 원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매 현 순간 내 계명에 순종할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계속해서 이 성지에 오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3-24):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적인 은총이다. 이것은 너희가 선과 악을 발견하고 선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은총의 형태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너희의 자유의지 선택들이 거룩한 사랑에 의해 인도되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적인 선택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너희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은총들은 내 신성한 뜻에 순응하거나 또는 내 뜻을 거부한다. 나는 내 은총의 도구가 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내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너희의 선택들은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0년 6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인종 폭동과 앞으로 다가올 일 등 이 갈등의 시대에서 인내하여라. 많은 일들이 너희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교묘히 계획되었다. 언론은 혼란을 움켜잡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혼란을 증식시키고 있다. 그들은 현 정부가 이루어 낸 좋은 일들을 무효화하는 명분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위대한 나라(미국)의 도덕 구조를 찢고 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더욱 강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너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덕이 튼튼하다면 너희는 떠들썩한 언론보도를 잘 물리치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덕을 너희 마음속 우상 깊숙이 넣어두어라. 그리고 불신 가운데서 그 덕들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스럽게 그 덕들을 입어라.”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13):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20년 6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얻기 위해 노력하는 보물이 천국이 되게 하여라. 이와 다른 목표는 너희에게 만족감도, 성취감도 주지 못한다. 너희가 이 지침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며,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싸우고자 하는 대의명분을 찾고 있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을 너희의 모든 것이자 궁극적인 것으로 삼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공허감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이런 명분들은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해야 하는 대의(大義)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명분들 중의 일부는 용서를 필요로 한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게 간청하였다. 물론 나는 뉘우치는 마음을 용서하였다. 만약 너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천국을 구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화가 나는 문제들에 휩쓸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용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7: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3:33-34):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 2020년 6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선교회와 이 메시지들을 믿는 이들로써 너희는 어둠에 전념하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교만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너희의 믿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라. 세속적인 영혼의 마음을 끄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성령은 활동하고 있는 거룩한 사랑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너희에게 제시할 것이다. 성령의 촉구에 너희 마음을 열고, 성령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여러가지 제안들을 겸손하게 사용하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련해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유다 17-2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닿아 두려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 2020년 6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인간의 감정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은총이 너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도록 은총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아무것도 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으며 전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너희가 나를 신

뢰해야만 하는 이유다. 은총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나 상황은 없다. 너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하여라.”

“신뢰는 너희의 행동 수단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은총의 알려지지 않은 힘이 너희의 명령만 기다린다. 오직 너희의 신뢰 부족의 힘만을 두려워하여라. 모든 어려움은 오로지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에 대한 시험에 불과할 뿐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2:29-31):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 2020년 6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뜻 곧, 나의 ‘허락하는 뜻 (Permitting Will)’이나 나의 ‘명령하는 뜻 (Ordaining Will)’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모든 사건들은 ‘나의 뜻’의 용단 안에 짜여져 있다.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응답이 너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너희의 삶’이라는 가장 정교한 용단은 ‘나의 계명에 대한 너희의 순종’이라는 실로 엮여진다. 너희가 지상에서 성취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계명에 대한 너희의 응답’이라는 이 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바로 이 응답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너희가 내 아들에게 보여주는 너희의 삶이라는 최종 선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너희는 일생 동안, 그러나 특히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모든 덕에 있어서의 너희의 장점과 단점들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탄이 너희의 덕을 약화시키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24):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1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일상 생활에서 너희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하여라. 사탄은 권력 기관 특히 경찰과의 관계, 엔터테인먼트, 패션, 정치적 문제 등에서 자신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이 나라(미국)의 내부 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선택이 되어 버린다.”

“엔터테인먼트는 동성애와 혼외 관계, 불법마약과 폭력을 일상적인 일처럼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다. 전쟁과 살인은 이제 통상적인 일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도덕 규범의 퇴폐가 진행될수록 국가의 안정은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 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세하고 영적 기준에 관해서도 힘을 얻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선택의 결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언제나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전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티토 2:11-14):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2020년 6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전 세계를 지배할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안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 영향력은 사악한 세력이 크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힘과 함께 마치 전염병처럼 눈에 띄지 않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단일 세계 정부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야심이다. 그들의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너희

는 속아서 그들을 따르지 않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2020년 6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평화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 시대의 표징들이 너희 온 주변에 산재해 있다. 전쟁은 전쟁을 낳고, 의로움은 사탄의 혼란에 의해 질식되고 있다. 너희가 한때 (너희의) 보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위험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외부 세력들이 한때 매우 확고하게 의로움 안에 있었던 이 나라(미국)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제 너희 나라에는 온 정당이 이 나라의 중심부를 산산이 부수기 위해 내부 구조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정당들이 있다. 이들은 그렇게 이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고 한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계명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진리의 타협을 받아들이거나 중요한 직함을 가진 자들에 의해 오도되지 마라. 너희가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확실히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4):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2020년 6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자녀들아, 서로 일치하여라. 악이 아니라 선 안에서 일치하여라. 너희는 너희의 지도자가 너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악한 길을 따르도록 속아 넘어가거나, 기적같이 보이지만 추가 조사 결과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진 것들에 매혹되지 마라. 오직 내 계명을 따르는 이들만 따르겠다고 다짐하여라. 내 계명의 보호 아래 서로 일치하여라.”

“이와 다르게 너희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자가 올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0년 6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인도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필요성을 확립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이 너희를 안내하는 틀림없는 길을 따라라. 이것은 내 신성한 뜻의 확실한 길이다. 너희가 일단 이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악은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너희의 주의를 빼앗지 못한다. 너희의 마음을 이 위대한 순종에 내맡겨라.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는 진리의 길이다.”

“너희가 이 진리에 충실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내 뜻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손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늘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0년 6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 묻고 있

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오감을 나에게 영예와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여라. 너희가 자연의 화려함을 볼 때면 그것을 만든 나의 손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에게 말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만지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창조물이다. 너희가 맛을 느끼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다.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여라.”

“너희 주변 세상처럼 너희 또한 나의 창조물이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저마다 삶에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모든 장애는 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라는 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너희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장애라는 특별한 선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라. 어떤 장애들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도 있다. 자신의 인격 장애를 봉헌하도록 부르심을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에 좀 더 잘 띄는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다. 어떤 장애든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주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미래에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도 바꿀 수 있다.”

“매일 아침 너희의 오감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7:17):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 2020년 6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간 속의 모든 날들을 나의 보살핌에 의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삶 속의 나의 뜻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나의 ‘베푸는 은혜(Provision)’를 신뢰하여라. 신뢰의 길은 사랑 안에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0년 6월 19일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나는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 안으로 들어와 이 순수한 사랑의 그릇의 기쁨과 평화에 의탁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한다. 절대 거룩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너희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중

단 하나라도 잃게 된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의 삶에 전념해야만 한다.”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이 되기 위한 이 노력만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성심은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를 실망시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기도와 희생이라는 너희의 노력으로 그 차이를 메꾸고 나의 비통한 성심을 치유해 주어야만 한다. 너희의 노력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에 은총이 쏟아지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13):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20년 6월 20일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내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너희의 기도 노력을 요청하고자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왔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임박한 내 승리에 대항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찌르기 위해 너희가 모든 고통을 참아 내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수많은 저명한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형제애를 위한 계획을 대체하였다. 또한 요즘에는, 우선 사항으로 여겨지게 된 동등한 권리가 올바른 이성을 대체하였다.”

“세상에서 사탄의 마지막 활동은 자기 존중과 하느님 사랑에 맞서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다. 사탄의 첫째 계명은 만유 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탄은 은둔하고 있는 영혼들까지 불러내 자신을 추종하는 사악한 무리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사악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모든 것이 최종 패배 전의 사탄의 최후 보루임을 깨달아라. 이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한 사탄의 절박한 시도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통한 기도 용사가 되라는 내 부름에 충실하여라. 내가 너희의 노력을 감쌀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0년 6월 21일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아버지들을 공경하는 오늘, 나는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현 순간을 내가 주는 선물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너희의 자녀들이 매 순간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특정한 은총들을 감사히 여기도록 가르쳐라. 이 은총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도와준다. 너희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 확고한 그리스도적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들의 삶에서 한결같아야 한다. 언제나 너희 주변 이들에게 성 요셉의 모범을 보이며 강한 가장이 되어라.”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악한 영향에 맞서는 강력한 보호 수단인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의 가치를 가르쳐라. 그들에게 하나된 성심의 중재의 영향의 힘에 대해 가르쳐라. 각 영혼은 하나된 성심에 대한 진실한 신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하는 곳마다 내가 그곳에 내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1:3-5):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 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2020년 6월 22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나라(미국)가 붕괴되려면 일치가 완전히 와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이것은 오직 애국심이 파괴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 세력들이 인종 차별을 이용해 국가적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도덕 규범이 바뀌어 급진주의자들이 그저 하나의 의견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잘못된 이유와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기초했던 법들의 타협을 허락하였다.”

“현 정부(트럼프)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규범을 받아들여라. 충실한 애국심을 손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든 받아들이지 마라. 애국

심에 반대하는 자들에 맞서 기도하여라. 기도는 진리를 지지하고 모든 악을 드러내기 위한 너희의 무기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3):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 2020년 6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루 동안 내린 모든 결정을 살펴보고 거룩한 사랑의 체로 한 번 걸러 보아라. 만약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사랑의 심판을 쉽게 통과한다면 너희는 떳떳한 양심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이상(理想)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보이고 통회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하루에 수시로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내 눈에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겠느냐.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단지 현 순간뿐 아니라 하루 전체를 통틀어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내 뜻은 내 계명이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현대 사회의 오만함과 내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내 뜻의 법정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요한 4-6):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0년 6월 24일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악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임을 깨달을 수 있도

록 지혜로운 이가 되어라.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대중 매체가 주목하는 모든 연령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악을 받아들이기쯤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미묘하지만 위험한 사탄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준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가 되어라. 그리고 분별하지 않은 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라.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지 고려해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라.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목표를 늘 마음에 간직한다면 사탄이 너희 마음속에 악의 그물을 엮어 넣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너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또한 사탄의 함정이다. 믿음이란 내가 너희 각자와 함께 여정하기를 바라는, 계속되는 사랑의 여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0년 6월 2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나라(미국)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진리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또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권력자들을 속이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너희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다. 진리란 '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치적 야심에 기반한 거짓말과 중상 비방에 기초해 건전한 정부를 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야심은 왜곡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부작용이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이 너희의 사랑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오도되지 않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0년 6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조각상들을 공격하는 것은 진리를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골적인 헌법의 무시는 이 나라(미국)의 안정을 약화시키고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기초했던 권위를 손상시킨다. 이런 행위들이 정치적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같은 사실을 통해 (현재) 세상의 양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것이다. 이런 정치적 주제는 과거에는 부끄럽고 심지어 범죄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정치인들 자신도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도덕이 얼마나 많이 진리에서 멀어졌는지 보아라. 이렇게 극단적인 사안들을 고려할 상태가 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요즘 시대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그리스도적 논리에 대항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여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게 될 것이며, 그의 가식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거짓을 수용할 것이며,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9-12):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2020년 6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인간의 모든 시련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시련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인류가 순간 순간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 은총의 길은 인간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오직 문제만 보고 내가 보내는 해결책은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상 사태에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가 보내는 경찰들이 돌에 맞고 공격 당하는 것 같은 일이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간이 기도에 의지해야만 하는 때다. 보복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만 더 늘릴 뿐이다. 어떤 친구가 원수가 되는지 놀라지 마라.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서로 갈라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대신 용서할 이유를 찾아라. 이것이 평화를 낳는 사고방식이다.”

■ 2020년 6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한 번 생각해 보아라. 미국 국가에서 나의 예수에 이르기까지 진보주의자들이 공격하는 모든 것은 (국가적) 자부심과 안보의 원천이다. 그들은 너희의 국가적 자부심과 그리스도적 정체성을 없애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진보적인 대통령이 선출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 또한 경찰과 법과 질서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것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안보 부족을 초래한다.”

“자녀들아, 지금은 옳음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옳음이 되는 시대다. 지각없는 이들은 표면 아래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 운동을 선동하는 자들은 너희 나라(미국)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나라의 토대였던 진리를 파괴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진보를 나타내는 한 정당과 보수를 나타내는 또다른 정당이 있다. 이런 분열은 인종 차별에 근거한 것으로 내적 평화를 몰아낸다. 민감한 인종적 문제들은 이 나라의 맥박을 제어하는 스위치와 같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 사건을 초월한 시각을 지니고 너희의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외부세력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의 사랑을 다시금 예수에게 두어라. 내 계명이 너희를 인도하게 하여라.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자들은 부정행위를 조장하려 한다. 진리를 고수하고, 너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전통이 선으로 보여지게 하여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20년 6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인종 차별'이란 말이 너희 마음속에서 폭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인종 차별이란 단어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다른 인종들 또한 나의 창조물로 여기고, 그들을 나의 창조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라. 인종 차별이란 말이 너희 마음속에서 증오를 촉발시키는 스위치가 되지 않도록, 또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다른 인간을 향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가 되게 하지 마라.”

“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서로간의 차이가 너희를 분열시키게 놔두지 마라. 일치가 너희의 목표가 되게 하고, 서로간의 차이는 나에게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서로를 묶어주는 관용과 힘이 되게 하여라.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거룩한 사랑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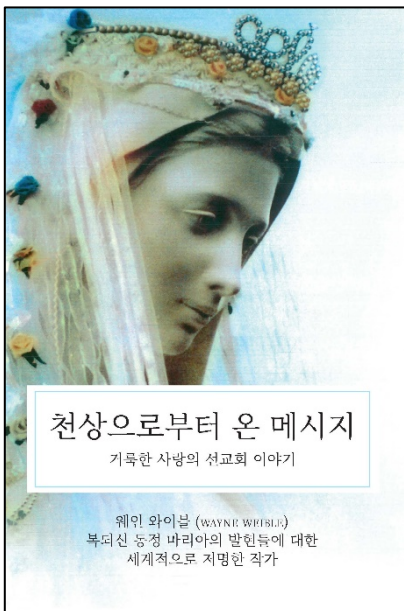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

■ 2020년 6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직 행동이 뒤따를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직 마음만을 보는 이유다. 나를 더 사랑하려면 영혼은 매일 매일 내 부정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나에게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영혼은 이 사랑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야만 한다. 기도를 더 많이 바침으로써 너희의 더 깊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런 종류의 말 또한 유익한 행동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행한 선행을 두 손에 가득 채워 나에게 다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 나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선물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면 너희 또한 나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너희의 하루 일정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코린 5:10):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신간 서적: 웨인 와이블 (Wayne Weible) 저서

천상으로부터 온 메시지

“이 책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시작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선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경험한 영적, 육체적 치유에 관한 체험 사례들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기자로서의 저의 객관적인 조사와 수차례 성지 방문 후에 내린 결론도 담고 있습니다.”

- 웨인 와이블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전화: 440-327-4532

이메일: customerservice@rosaryoftheunborn.com

온라인 주문: www.rosaryoftheunborn.com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 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태아목주 (5단)



확대된 목주알



짧은 태아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5단): \$29.95 짧은 태아목주: \$14.95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

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웹사이트: <http://www.ho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ovekorean.com (웹사이트)